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사회의식화 교육적 접근

김 태 호

여의도연구소

A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Education Approach to Rural Community Development Movement

Tae Ho Kim

Reaserch Fellow, Youido Institute

Summary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limits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movement,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consciousness education and movement, and suggests the model of social consciousness education to rural community movement.

Since consciousness education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movement methodologically, organizational and systematic community development movements for re-structuring the urban-oriented policies and education which back up them be followed as natural consequence.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w paradigm is suggested. As shown in the model, new understanding of urban-rural continuum theory, new roles and concept of social consciousness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solve the contemporary rural community problems. The organiz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movement for the rural-oriented policy should be an essential process, and peoples' re-orientation, such as 'breaking stereotype', 'assumming a critical thinking toward social reality' etc., is the indispensable background of successful movement.

I. 서 론

지역사회개발의 목표가 국가마다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경제성장정책의 추진에만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대도시의 과밀과 농촌의 상대적 낙후라는 도·농간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과 격차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도시·농촌 모두를 문제지역으로 전락케 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의 가치관,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가져오고 그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종합적 개발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가치관 및 행태의 발전적 변화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노력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사회운동 내지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정부주도의 타율적 방식을 취할 때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한 상향적 지역사회개발 추진은 불가능하다.

실천적 운동의 기반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하성규, 1988:184-185). 첫째, 주민집단은 지역사회 내의 발전적 여건을 조성하고 개발을 계획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모체가 된다. 따라서 지역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주민집단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동태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지역사회개발은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국가발전을 기하는 가장 기초적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민의 의식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주민이 주체가 된 개발사업의 수행은 지금까지의 하향적·중앙집권적인 접근보다는 상향적·지방분권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전략은 도시지향적 거점 개발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개발전략이 지닌 장점도 있지만 국토개발전략으로서의 부정적 효과도 적지않다. 즉 개발의 영향이 한정된 지역에만 발생될 뿐 나후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개발 실시의 제반활동은 주민들이 깊은 개발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활발히 수행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개발운동이 외부의 자극이나 유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주민의 개발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 각자가 하기 힘든 일은 집합적, 조직적 노력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를 말한다. 자신들의 권익과 자존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출발이 바로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개념과 한계를 파악하고, 둘째, 지역사회개발 운동과 사회의식화 교육과의 관련성을 구명하며, 셋째,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접근방식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개념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주민의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농촌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저간에는 지금까지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며,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운동조직의 메카니즘을 통해 정책적 소외를 막고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김태호, 1992)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날의 농촌지역 저발전의 일차적인 원인은 정책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촌주민의 요구수준도 주로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오늘의 농촌지역사회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농촌사회의 내부적 요인이라기 보다 국가발전의 총체적 맥락속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농촌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노력의 형태가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농촌지역주민이라는 보다 주체적 시각에서 운동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오만 롱(Long, 1977:185-192)이 제시한 행위자 지향적 모델¹⁾(actor-oriented model of behavior)로 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의 함축적

1) 노오만 롱(Norman Long)은 소농이나 농촌주민을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압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농촌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데, 그 하나는 정책론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보다 농민적 시각에서의 정책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농촌지역 주민의 주체적 관점에서 농촌주민의 조직을 통한 권익획득 차원에서의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첫째로, 농촌·농업정책은 그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농촌주민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농촌주민적 시각에서 정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 농촌정책은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부문이 어떻게 상호보완 관계속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매카니즘을 갖지 못하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지극히 기능적이고 분리적인 인식속에서 도시중심, 수출주도형 공업중심의 일방적 성장속에서 농업 농촌문제에 대하여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공업화추진 전략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생산중심적이고 농촌농민배제적 성격이 현저하였다.

물론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가소득이나 농촌주민의 삶도 절대적 외형적 수준에서는 향상되어 왔지만 국민경제 전체속에서 특히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라는 상대적 관계속에서 파악되는 농촌 농민의 위상과 열악한 삶의 조건-즉 생활편의시설과 소득의 지역격차, 농촌생활의 상대적 불리와 저평가 등-은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및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극단적으로는 농업 농촌지역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패배주의적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함으로써 가치와 방향상실의 정신적 아노미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곧 농업 농촌정책이 종래의 농민 배제

적 생산중심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발전적 지향의 시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 그 구체적인 방향(홍동식 외, 1988)으로서 먼저 농업 농촌정책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농민적 시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종래 농정의 수립은 일부 정당이나 정책입안자 특히 경제부처나 관리들의 전담활동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의 이해관계는 항상 경제성장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추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의해 희생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여타의 국가정책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선적인 정치적 영향에 바탕을 두고 정책수립과정에 영향력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농민과 농민 단체참여의 제도적 장치가 중앙에서 지역단위에 이르기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두 번째의 방향으로는 농업 농촌정책의 목표가 종래의 생산지향적 목표로부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농민의 복지, 즉 생활지향적 목표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농정이 편협한 농업중산의 목표달성에서 벗어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고 농업생산도 국가적인 경제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주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시각에서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의 주체적 조직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사회 운동은 농촌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자주적이고 자각적인 토대위에서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농촌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익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해

는 동질적 계급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에 반대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농민의 행위를 제약하는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틀(frameworks)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함축하고 있는 주요한 의미는 경제발전이나 변동의 중요성을 행위자 혹은 수용자들의 측면에서, 즉 '위로'부터 보다는 '아래'로부터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가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종래의 농업 농촌지역 정책이 하향식 논리에 의해 수행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볼 때 앞으로의 정책수립 및 결정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민의 의사와 요구가 획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수입농산물의 불매운동, 과소비성향 억제 및 불량공산품 퇴치운동, 지역농업 및 공업의 보호, 환경보존 및 공해 추방운동 등 농촌 주민 차원에서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농촌지역민의 시각에서 정책변화는 필연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주민의 집합적, 협동적 실천과정이 바로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III.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한계

우리나라의 근대적 조직적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1957년 한미합동경제협회의회에서 지역사회개발의 필요성과 그 실시 가능성이 검토된 것을 시발로 본다(임경수, 1987:414). 이러한 근대적인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정부의 주관 부처 이전과 더불어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겪어 왔으나 1980년대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72년부터 실시되어 왔던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 지역사회개발 운동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있어서 발전전략의 한 유형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지역사회개발 운동에 대한 관심 소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 농촌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체로 정치적 파행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사회개발 운동이 침체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이 인간위주의 개발 정책이 아니라 경제위주의 개발정책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인간중심적 개발논리를 추구하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이 더욱 절실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임경수, 1994:84-85).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이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70년대 이전까지의 경제 사회체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촌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이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개발을 추구하였다. 초기 정부 주도하에서 진행된 새마을 운동의 사업내용은 ① 정신계몽 ② 생산기반 조성 ③ 공동이용 시설 ④ 소득증대 ⑤ 취락구조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내무부, 1980:526).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으로서는 ① 마을단위의 소규모 개발 ② 마을간의 상호 경쟁심리 ③ '하면된다'는 자신감 ④ 적절한 정부 지원 ⑤ 마을 주민 및 지도자들의 헌신적 참여 정신 ⑥ 상시 국내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상승기류 등을 들 수 있다(임경수, 1988:416).

그러나 1979년말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새마을 운동은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정치적 이용, 전시효과적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주민의 욕구와는 괴리된 행정 및 관료주의적 사업추진), 개발이론의 결여로 그 정신을 이어가지 못한 채 단절되고 말았다.

80년대 새마을 운동의 단절 이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 운동은 점차 모습을 상실해 갔고, 타율적이고 자생력이 없는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농촌을 더욱 피폐화 시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문제점

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이 '변화하는 농촌'을 간파했다는 점이다. 만약 지역사회개발 운동에 있어서 개발을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발을 계획하고 의도하는 주체(예컨대, 개발위원회)가 그 대상인 지역주민 전체의 스스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변화에의 적응력이 미흡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개발의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려고만 했지 지역 스스로 국가 또는 이웃 지역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는 이 사실은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 수용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권일남, 1991:57-58). 이러한 정보의 양적 확대와 접촉빈도의 증대는 농촌 주민들의 의식구조에는 많은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농촌지역사회개발의 사업규모는 대체로 마을 중심적 소단위 지역에 한정되어 왔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보다 거시적인 도·농격차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미 농촌사회의 도로, 교통, 통신 등 하부구조의 개선이 산간오지나 특수 농촌지역 외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주민합의를 유도하거나 협동노력을 수행하는 데는 용이할지 몰라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전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공간적 분포상태를 고려해 볼 때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민간단체의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보다 광역화 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문지욱, 1992:34-52).

셋째로, 관주도형 농촌지역사회 개발사업이다. 지역사회개발 운동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치결정권을 주고 스스로의 협동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적위주의 지역사회개발 추진은 오히려 주민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 지역사회개발 지도자들은 관의 지시나 사업목표를 앞장서서 수행하는 전위대로 전략시킴으로 사회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개발 지도자의 위치는 막중하다. 사업을 계획하며 주민을 조직화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이 모두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Dunham, 1970:190-191). 농촌지역사회 개발의 경우 지도자들의 자기 마을에 대한 순수하고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지 못한 것은 이들에 대한 교육, 포상 등이 단기적이고 전시효과적인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앞으로의 농촌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의 차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샌더즈(Sanders, 1975:454-455)가 말한 '정치과정의 민주화, 분권화, 국가경제개발계획과의 연결망,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율적 개발권의 확보' 등이 주요한 운동과정이 되어야 한다.

IV.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과 사회의식화교육과의 관련성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인식변화일 것인데, 이러한 인식변화의 수단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과 교육은 둘로 나누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농촌지역사회문제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정책적 소산이라고 볼 때, 그러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농촌지역 주민의 의사가 획기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생적 조직을 통

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지역사회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일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전(前) 단계로서 방법론적 뒷받침이 사회의식화 교육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사회의식화 교육과 지역개발 운동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란 개념적으로 변화를 중진시키거나 또는 저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의 집단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분명한 목표와 조직 그리고 명백한 변화지향적 이념을 가진 구체적인 목표달성 지향적인 사회활동이다. 지역사회개발운동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교육적 행동을 통해서 운동가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의식적으로, 동시에 의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회활동이다 (Turner and Killian, 1957; Smelser, 1963; Torch, 1965; Blumer, 1951).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지역문제가 악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맥아담(McAdam, 1982:40)은 운동의 출현에는 기존의 조직이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직의 출현에는 네 가지의 자원으로 구성원, 기존의 연대동기의 구조,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지도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에 또 하나의 필수조건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몫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인식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운동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변수가 사회의식의 함양과 인식상의 변화라는 이러한 개념파악은 사회의식화 교육의 한 측면을 예시해 준다고 볼 수 있는 데, 지속적인 과정적 측면이라는 운동과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의식화교육은 그 표피에 있어서 상당정도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사회의식

화 교육에서는 사회운동의 과정적 측면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식화 교육과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식화 교육과 지역사회개발운동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며, 방법론적으로 사회운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개발운동의 교육적 뒷받침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은 지역사회개발 운동의 과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V.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사회의식화 교육적 접근

1. 사회의식화 교육의 개념

보다 농촌 농민적 시각에서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식화 교육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사회의식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개념 정립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파울로 프레이리(Freire)는 교육은 중립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듀크(Duke, 1987:1-6)에 의하면 사회교육은 평등과 책임성이 반영된 성인들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이며,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다. 또한 사회교육은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을 형성하며, 현재 처해있는 환경과 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사회변혁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의식하게 하며,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있는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교육이다(이규환, 1987:282).

이러한 시각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사회의식화 교육이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방향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과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발전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

의 것이어야 하며, 사회의식화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철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의식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농촌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무지의 제약과 한계성, 그리고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농촌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자유를 증대시키고 그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사회의식화 교육이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개발, 발전시키도록 도와 주는 방향에서 그 역할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의식화 교육은 일상의 생활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이것은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무엇이 발전인지를 협동적이고 조직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식화 교육은 농촌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며, 그들로 하여금 행동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의 목적을 지키기에 합당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의식화 교육이 농촌주민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려면, 그것은 농촌주민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통합되어야 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과정에서 교육은 그들의 삶과 분리가 아닌 통합의 상태로서 자신과 전체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다시말하여 사회의식화 교육은 농촌 주민들의 내면적 변화와 농촌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창출해 내는 변화와 타인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변화를 모두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의식화 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능은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변화를 갈망하도록 고취함과 아울러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신의 뜻이라는 운명론적 사고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의 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의 불만족은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결합되지 않는 한 극복되기 힘들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신들의 삶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신들의 행위 즉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의식화 교육의 기능은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바의 변화를 계획하도록 도와 주고, 이를 어떻게 창조해 내는 것이 좋은지를 도와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의 시인 관주(Kuan Tzu)의 말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한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면 그는 한끼의 식사를 할 수 있다. 만약 그에게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는 평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배움은 분명히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회의식화 교육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의식화 교육의 개념이 포함하는 범위는 인간의 이해를 넓히고 농촌 주민들을 활성화시키며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게끔 돕고 또 그들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실천에 옮기도록 도와 주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지역개발 운동의 사회의식화 교육적 접근

철학적으로, 급진주의자들은 인간이란 존재가 주체이며 자유와 독립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주의자들은 또한 사람들에게는 사회를 변화시킬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다. 급진적인 성인교육자들은 불합리한

사회체계의 확산으로 인하여 빈곤과 압박감이 형성된다고 믿는다. 그 체계는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변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행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단행동은 동등한 기회의 부여와 같은 형평(equity)에 도달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사회 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인들의 집합적 행동을 통한 농촌개발 운동은 필연적 과정이라 여겨지며, 사회운동이 성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인식변화를 가져와 농촌주민들이 보다 실천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회의식화 교육이다.

프레이리(Freire, 1987:140-160)는 농촌지도(extension)와 교육자인 영농기술자의 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노력은 의식화이다. 의식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때, 민중으로서의 사람들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그들을 인간화 하는 역할이다.”라고 의식화 교육(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을 농촌사회의식화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설명하고 있다.

하버마스(Habermas, 1971)는 문화란 노동(work), 상호작용(interaction), 권력 혹은 지배(power or domination)의 세 가지 필수요건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했는데, 우(Wu, 1989:132)는 이러한 세 가지 지식의 영역을 교육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구 분	노 동	인 간 관 계	의 식
목 표 전 락 지식의 형태	일에 관련된 능력 기술개선 소극적인 정보	정상적인 구조 의사소통의 개선 적극적인 상호작용	독 립 심 대화기회 비판적 사고

출처 : Wu, 1989:132.

의식화(concientization)의 개념은 앎(knowing)과 행위(doing)에 대한 통찰과정에서 이론과 실체를 결합시키는 것(O'Gorman, 1984:179)이라고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식화란 개념은 1960년대 고등교육에 관한 브라질인 협회의 연구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보다 이론과 실체를 결합시켜 보편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은 파울로 프레이리였다. 대개 의식화를 사회적 문제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Wu, 1989:133)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레이리는 의식화를 위협스러운 질서파괴로 보는 것은 억압자의 행동이론이지 피억압자의 주체적인

간으로서의 행동 이론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의식화는 인간들을 파괴적인 광신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다. 오히려 의식화는 인간들의 책임있는 주체들로서 역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자기확인을 추구하게 하여 광신을 피하게 한다(Freire, 1979:18).

프레이리(Freire, 1979:17)의 의식화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 모순들을 인식하고 현실의 압제요인들에 항거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학습을 말하며, 또한 사람들이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지식습득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 문화적 현실과 그 현실을 변형시키는

그들의 능력의 심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가르킨다.

플레이리의 의식화는 지식의 증가과정이다. 지식의 심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현실을 들추어 내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통찰할 수 있다. 현실을 알려면 살고있는 현실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실을 아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은 의식화 과정의 근본적인 두 가지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각성을 심화시키려 노력하고 그들의 생활환경을 비판적으로 의식함으로써 현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의식적 행동에 종사하고 사회가 보다 인간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과정에 가담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게 된다.

플레이리가 제시한 의식화란 첫째로, 주민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처음으로 일깨움으로서 일어나는 새로운 인지수준으로 처리하게 해주고, 둘째로, 그들 자신들의 삶을 조정하기 위한 선택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게 해주며, 셋째로, 자신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졌던 압박감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ezirow, 1978:105).

플레이리의 인간화를 위한 교육적 내용은 실제에 대한 반성과 그 실재를 변형시키는 행동사이의 통일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의식화 교육은 문화서클(cultural circle)이라는 소집단 학습 단위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피억압자들에게는 정치적 힘이 없는 까닭에 제도적 교육이 아니라 피억압자들과 일치,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의 교과내용은 지식차원에서가 아니라 행동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플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육방법을 기초로 한 농촌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제 1단계

① 연구자들이 선정된 지역에 관해 2차적 자료를 통해 연구한다.

② 해당지역 사람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연구의 동기, 실시방법, 쓰일용도 등을 이야기하고 공동 연구 지원자를 찾는다.

③ 여러 차례 그 지역을 방문, 그 지역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비판의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지역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제들을 분석한 뒤 그 문제를 다시 부분 영역들로 나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접촉을 통해 주민의 생활양식, 태도, 언어 등 사소한 점까지 기록한다.

④ 연구자들과 그 지역 출신 공동연구원들이 그 지역내의 어느 장소에 함께 모여 그들이 얻어낸 결과를 평가한다.

⑤ 연구자들의 평가를 통해 다시 논리적으로 분할된 영역으로 돌려 보내어 자료를 수집하게 한 뒤 다시 한 번 평가회를 연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를 분할하고 통합시키는 작업을 거듭할수록 그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적 모순들과 2차적인 모순들의 핵심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제 2단계

1단계에서 추출된 사회문제의 모순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류하고 이를 사진, 슬라이드, 그림, 포스터, 필름, 연극 등의 형태로 지역문제를 상황화 한다.

제 3단계

실제 농촌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화 된 농촌지역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여 가장 공통적인 문제들을 취하여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부와 다른 단체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농촌주민 자신들의 조직화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분류한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하고 특히 전문가와 문제들

논의한다.

제 4단계

제3단계의 결과를 서로 전문이 다른 연구원으로 이뤄진 팀에서 연구한다. 여기서 참가자가 직접 제기하지 않은 기본 주제들이 보태어 지는데 이 주제들은 문제 상황화 된 주제들의 연결을 보다 의미있게 되도록 하는 매개 주제들이 된다.

제 5단계

연구자와 주민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전문가와의 토의 및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다 건설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해 이를 다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상에서 보는 문제제기식 교육내용은 교육 대상자의 구체적인 삶을 이론화하고 이 이론을 다시 대상자에게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 뒤 재차 이론화하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상호간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분석해 내는 동안 참가자들이 점차 고정관념 및 매물상태로 부터 뛰쳐나와 자기 자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며, 이제까지 자신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도 조직화된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동기를 가지게 한다.

결국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의 적용은 농촌지역사회 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위해 농촌주민들이 직접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과 의사결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권력과 권리를 농촌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갖도록 돕는 것이며, 자신들의 열악한 사회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식을 고양하고, 그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인간지향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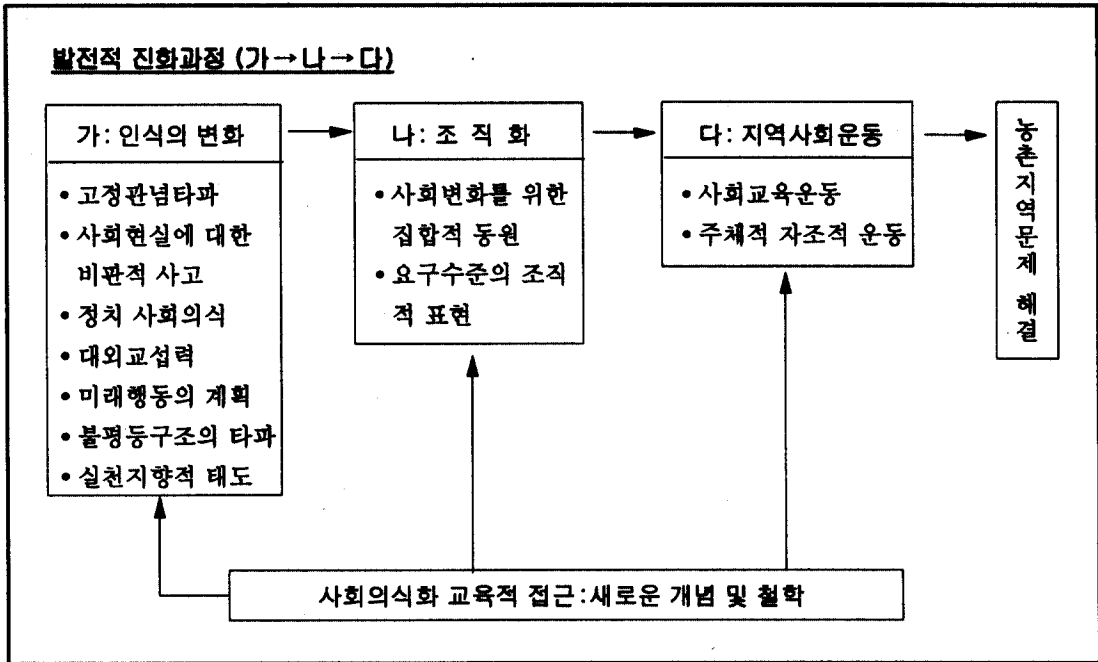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달성의 과정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의 한 가지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으로 민주적 방식에 의한다. 그리고 의식화 교육의 실천적 방법으로써 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의식화 교육의 실천방법으로서 참여연구는 농촌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 스스로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의 함양은 농촌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의 제일의 과제는 농촌지역의 문제해결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주민들을 주체적으로 의식화하도록 돕고,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의 목적달성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은 농촌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농촌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인간지향적 교육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농촌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정책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조직적인 지역사회개발 운동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역사회개발 운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정관념의 타파,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 등을 포함한 지역민의 인식변화이며, 이러한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적 뒷받침이 사회의식화 교육의 접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의 발전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의식화 교육의 발전모델

VI. 결 론

소위 '농촌의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농촌은 각종 지역문제로 농촌이 지니는 본래적 성격이 해체, 붕괴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적 발생원인이 주로 도시, 공업편향적인 정책의 소산이라 볼 때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커다란 모순은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다. 물론 형평분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집단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정책결정은 도시편향정책하에서 파생되는 농촌지역 문제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업화 추진전략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생산중심적이고 농촌주민 배제적인 성격이 현저

하였다.

바람직한 대 농업, 농촌정책은 그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들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과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농촌주민적 시각』에서 정립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상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집합적, 집단적, 조직적인 농촌지역사회 운동은 당연한 귀결이다. 농촌주민의 자주적인 집합적 노력의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 운동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의 획득에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동등한 기회 부여와 같은 형평에 도달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원

칙에 비추어 볼 때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은 문제 해결의 주요한 접근방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운동이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정치 사회적 의식제고를 하며,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며, 개인적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협동적·집합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실천지향적인 사고로의 인식변화이다.

인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사회의식화교육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흔히 의식화 교육은 사회혼란이나 폭동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사회의 모순구조가 노출되는 것에 위협을 느끼는 가진 자의 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의식화의 본질적 의미는 비편의집단의 권익 획득을 위한 인간지향적 교육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사회의식화 교육적 접근이 소망스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 새로운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접근 방식으로서 사회의식화 교육의 발전전략은 보다 농촌주민적 시각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실천원리가 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I. 참고 문헌

1. 권일남, 1991. 「농민의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인지와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권태준, 1990. “지방자치제와 주민운동”, 「여성」, 8월호.
3. 김동희, 1988. “한국농민단체현황과 농민운동방향에 관한 연구”, 「21세기 농정발전방향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성수 외, 1991. 「농촌 농업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사.
5. 김태호, 1987. “개발도상국 소농발전을 위한 조직화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_____, 1991. “전환기 농촌사회교육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3).
7. _____, 1992. “농촌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적 발전전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_____, 1996. “살만은 지켜야 한다”, 「신동아」, 5월호.
9. _____, 1966. “농촌지도자의 지방지화에 따른 정책과제”, 여의도정책논단, 여름호.
10. _____, 1996.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여의도정책논단, 가을호.
11. _____, 1996.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여의도정책논단, 겨울호.
12. _____, 1997. “농촌지역정보화의 현황과 향후 과제”, 여의도정책논단, 봄호.
13. _____, 1996. “저발전국 농촌지도사업의 공공적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3권 제1호.
14. _____, 1996. “지방자치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위상과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8권 제2호.
15. 김태호 외, 1994. 「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16. _____, 1995.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여의도연구소 연구과제.
17. _____, 1995.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 전략 연구”, 여의도연구소 연구과제.
18. 독일사회교육협회(DVV), 김지자 역, 1984. 「사회교육과 발전」, 한국사회교육협회.
19. 듀크(Duke, C.), 정지웅 역, 1987. 「비교사회교육론」, 서울대출판부.
20. 문지옥, 1992. 「지역사회개발 광역화 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서중혁 외, 1995. 「지방자치시대의 농정의 발전 방향」, 농촌경제연구원.
22. 손경학, 1992.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논문.
23. 양현아, 1991.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개와 논리: 생태계운동과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오고르만(O' Gorman), 1984. “포토몽타주를 통

- 한 의식화”, 『사회교육과 발전』, 독일사회교육 협의회 편, 김지자 역.
25. 이정찬, 1992. “탈농시대 농민운동의 활로”, 『말』, 5월호.
 26. 임경수, 1987. “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정신사적 고찰”, 성결교신학대학교 『논문집』 제16집.
 27. _____, 1990.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 개발과 지방재정”, 성결교 신학대학교, 『논문집』 제17집.
 28. _____, 1994. “도·농 연계 지역사회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 학술지 제4집.
 29. 장상환, 1988. “한국농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현황과 인식』, 12권.
 30. 정지용, 1993. “변환기의 농촌사회교육”,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23).
 31. 최민호, 1989. “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농촌의 미래와 농업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3).
 32. 프레이리(Freire, P.), 성찬성 역, 1979. 『페다고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지협의회.
 33. 프레이리(Freire, P.), 채광석 역, 1987. 『교육과 의식화』, 중원문화.
 34. 프레이리(Freire, P.)외, 김쾌상 역, 1980. 『민중교육론 : 제 3세계의 시각』, 한길사.
 35. 하선규, 1988. “지역개발과 주민운동”, 『민족지성』, 5월호.
 36. 홍동식, 1987. “한국의 도시화와 농촌의 저발전”, 『현대사회』, 7권 3호.
 37. _____, 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38. _____, 1989. “한국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실태연구”, 성곡논총
 39. _____, 1989. “도농의 불균형발전과 사회교육”, 한국사회교육연구, 제14권.
 40. Blumer, H., 1969. “Collective Behavior”, In A. M. Lee(ed.), *Principle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and Noble.
 41. Blumer, H., 1974. *Social Movements*, In R. Denisoff(ed.), *The Sociology of Diss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42. Duck, C., 1987. *Adult Education and Development-Some Important Issues*, Adult Education, *German Adult Education Association*, No. 16, March.
 43. Dunham, A., 1970.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44. FAO, 1973, *People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Vol. 1: The Proceedings of the Asian Regional Workshop, India 2-12 Sept.
 45. Freire, P., 1985. *The Politics of Education*, Massachusetts : Bergin and Garvey.
 46.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Boston : Beacon Press,
 47. Lipton, M., 1976. *Why People Stay Poor : Urban Bias in World Development*, London : Temple Smith.
 48. Long, M., 1977.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Methuen & co, Ltd.
 49. Mezirow, J., 1978. *Perspective Transformation*, Adult Education.
 50. Sander. I., 1975. *The Commun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51. Styler, W. E., 1984. *Adult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s*, Dpartment of Adult Education, University of Nottingham.
 52. Ward, T. W. et al., 1974. *Effective Learning in Non-formal Education*, East Lansing, Michigan : Michigan state University.
 53. Wilson, Joh, 1973. *Introduction to Social Movements*, New York : Basic Books[10].
 54. Wu, T. S. 1989. *Agricultural and Extention Education and Future of Rural Society in Taiwan, Republic of China*, 『農村의 未來와 農業教育』, 韓國農業教育學會誌, 第21卷 第3號.